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패널분석*

이 미 진

(건국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관한 종단적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고령화와 한국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3개년도 자료를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연령집단일수록, 무배우일수록, 농촌지역 거주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활동의 수가 적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에 여유가 없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초기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종단적 변화는 거주지역, 교육수학기간,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노년층이 본인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 중노년층, 잠재성장모형

1. 서론

우리 사회는 예로부터 노인에 대한 '공경'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아 왔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들은 노쇠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다(한정란, 2000; 김윤정·강인·이창식, 2004; 이윤경, 2007). 그런데 노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 태도는 노인차별(ageism)로 발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22-B00010)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Cook and Kunkel, 2006).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당수는 고용상의 차별 등과 같은 노인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김옥, 2003; 국가인권위원회, 2006), 일반적인 사회제도와 문화가 다분히 연령차별주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노인의 신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Levy와 동료들이 수행한 일련의 실험연구, 종단연구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Levy, 2003).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노출된 노인은 긍정적인 고정관념에 노출된 노인에 비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글쓰기 능력이 저하되고, 걷는 속도가 느려짐 등을 발견하였으며,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Levy, Slade, Kunkel, and Kasl, 2002; Levy, 2003).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어떠할까? 비노인층과 마찬가지로 노인층 역시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로는 최성재(2009)의 질적 연구결과와 2004년 전국노인실태조사 결과 등을 들 수 있다. 최성재(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노년층은 노인들이 능력이 떨어지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 전국 노인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절반 이상의 노인들이 노인은 노쇠하고, 비관적이며,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 2005).

한편 이지영(2008)은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본인의 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지영(2008)의 연구는 소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노인집단이 본인의 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기 어려우며, 질적 연구의 특성상 어떤 요인들이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없다.

노화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양적 연구는 대부분 노인 일반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으며(이선자, 1989; 김윤정 외, 2004; 이금룡, 2004; 정영미, 2005; 홍현방, 2009)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인이 알기로는, 국내노인을 대상으로 한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양적 연구는 Jang, Poon, Kim, and Shin (2004)이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임의표본을 사용한 횡단 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외 연구에서도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양적 연구는 많지 않으며, 횡단 연구가 대부분으로 종단 연구로는 Kleinspehn-Ammerlahn, Kotter-Grühn, and Smith(2008)이 거의 유일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노인차별로 연결될 수 있으며, 특히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사회 일반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내면화하고 노인차별에 대해 둔감하게 함으로써 노인차별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Levy, 2003). 뿐만 아니라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노인의 삶의 질,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정불변의 성격이 강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는 대조적으로 사회복지실천적 개입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을 노년층에 국한하지 않고 중년층까지 포괄한 것은 다양한 성인 연령층을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년기에는 신체적 노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실감하므로(이선자, 1989) 중년층과 노년층에게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지영(2008)의 연구에서 보듯이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로 한정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노년층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증진하고, 노화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초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종단적 변화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1)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 개념 및 관련이론

일반적으로 노화에 대한 태도는 노인 또는 노화에 대한 정서적(예: 노인에 대해 좋다, 싫다는 느낌), 인지적(예: 노인이 되면 모두 치매에 걸린다는 잘못된 믿음), 행동적 측면(예: 노인과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지 않음)에 대해 지각, 평가하는 것을 뜻하며,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 이미지(image), 인식 등 다양한 용어로 명명되어 왔다(이윤경, 2007; 이지영, 2008). 이들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미지'란 마음 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각적 영상 또는 심상,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이나 인상을 의미하며,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여 아는 것을 뜻한다(동아 새국어사전, 2006). 이미지나 인식은 거의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된다(이윤경, 2007). 반면 고정관념은 어떤 특정집단에 대한 단순화된 묘사로서 노화와 관련해서는 연령이라는 한 가지 특성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특정한 유형으로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을 지칭한다(Cook and Kunkel, 2006).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age stereotype)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고정관념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일반적이지만, 정서적·사회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고정관념이 상존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Boduroglu, Yoon, Lou, and Park, 2006). 또한 노화에 대한 태도는 다측면성(multidimensionality)을 가지고 있어(Kite, Stockdale, Whitley, and Johnson, 2005) 영역별로 노화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 있다(이윤경,

2007; Boduroglu et al., 2006).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George Herbert Mead의 자아(self) 개념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는데, Mead(1934)에 의하면 “자아는 특정 개인의 『타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반화된 타자 또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받아서 자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Levy et al., 2002에서 재인용). 이를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적용해 보면 사회 일반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내면화되면서 개인은 노년기에 본인의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고정관념(stereotypes)을 형성하게 된다.

Levy(2003)는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아동기에 이미 형성되고,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성인기에 더욱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내면화가 되며,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특성을 갖는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일상적으로 본인의 노화 현상을 경험하면서 개인은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노인에 대한 태도를 본인에게 적용, 본인의 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Levy와 동료들은 본인의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일련의 연구에서 Lawton(1975)의 PGCMS의 하위척도인 본인이 지각한 노화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own aging sub-scale)를 통해 본인의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 또한 동일한 척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Levy와 동료들과는 다르게 본인의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용어 대신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지지만 고정관념은 긍정적인 고정관념도 있지만 본래 의미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본래 Lawton(1975)이 이 척도를 태도로 명명한 것에서 보듯이 태도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¹⁾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기존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와 유사하게 태도의 하위 측면 중 행동적 측면을 제외한 정서적·인식적 측면에 한정된 개념임을 밝혀둔다(이지영, 2008).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다음의 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 “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운이 넘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아진다”; “나는 지금 젊었을 때보다 행복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PGCMS의 하위척도는 본인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3개 요인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Lawton, 1975). 그러나 이 척도는 고유한 변량을 가지고 있으며(Liang and Bollen, 1983) 주관적 안녕감과 차별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Levy et al.(2002)에서는 PGCMS으로 측정된(세 개의 하위척도의 합계로 측정됨) 주관적인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그 자체는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PGCMS의 하위척도인

1) 이미지나 인식과 같은 용어는 이윤경(2007)의 연구에서 보듯이 노인이 노쇠하다와 같은 단순한 느낌을 포착하는 용어로 적절하지만,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를 명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einspehn-Ammerlahn et al., 2008).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성성인(40-85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는 65세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역U자형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Mroczek and Spiro III, 2005). 이러한 연구결과가 도출된 것은 노인은 나이가 들에 따라 노화에 대해 더 부정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연령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는 Levy(2003)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2)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론적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역할이론(social role theory)의 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Levy(2003)의 이론은 노화에 대한 태도를 중노년층이 어떻게 내면화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지만, 노화에 대한 태도의 개인적인 차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역할이론에서는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Kite et al., 2005). 따라서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 역시 기본적으로 본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의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Kite et al.(2005)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보듯이 개인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노인에 대해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 역시 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성, 연령, 결혼상태, 거주지역, 교육수준을 포함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사회활동, 손자녀양육을 통해 살펴본 사회적 역할, 통제변수인 경제상태와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 연령, 결혼상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① 성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문화로 인해 노화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Levy, 2003).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년기에 진입하는 연령이 더 빠른 것으로 인식되며, 신체적인 외모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을 더 받게 되므로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외모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Kite et al., 2002). 따라서 여성노인은 성차별(sexism)에 더하여 연령차별(ageism)을 중첩하여 받게 되고(double jeopardy),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중 잣대(double standard)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여성은 노년기 이전부터 성차별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대응기제(coping skills)를 발달시켜 왔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잘 방어할 수 있다(Levy, 2003).

또한 배문조(2009), Kite et al. (2005)의 연구에서 보듯이 노화에 대한 태도는 다측면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화에 대한 태도 중 어떤 측면인가에 따라서 노인들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성별이 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아 이선자(1989), 김윤정 외(2004)에 의하면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권중돈·손의성(2010), Jang et al. (2004)에서는 노인의 성별과 노화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Kleinspehn-Ammerlahn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차이가 종단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연령

기존의 선행연구는 연령효과보다는 연령차이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노인집단내에서 연령차이를 비교한 연구를 보면 노인의 연령과 노화에 대한 태도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김윤정외, 2004; 정영미, 2005; Levy, 1999; Jang et al., 2004; Kite et al., 2005). 반면 노년층과 다른 연령층과 비교한 국내외 연구는 대체로 노년층에 비해 다른 연령층, 특히 중년층이 노인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성혜, 1990; 김윤정 외, 2004; 이금룡, 2004; Kite et al., 2005).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척도와 동일한 척도를 분석한 Kleinspehn-Ammerlahn et al.(2008)에서는 횡단면에서 연령은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연관이 없게 나타났으며, 종단적 변화와 연령과의 관계를 보면 고연령일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인의 노화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결혼상태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결혼상태에 따라 다른지에 대해 검토한 경험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정영미(2005)는 무배우 노인은 유배우 노인에 비해 정서적, 도구적 지지가 결여되고 자녀나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배문조(2009), Jang et al. (2004)에서는 노인의 배우자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④ 거주지역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른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최성재(2009)의 질적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농촌지역 거주자가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와 농촌의 일반적인 격차, 농촌지역 노인들이 농사일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횡단자료를 분석한 국외 선행연구에 의하면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농촌지역 거주자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모로코의 노인을 분석한 Macia, Lahman, Baali, Boëtsch, and Chapuis-Lucciani(2009)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지역 거주노인이 도시지역 거주노인에 비해 본인의 노화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에서는 노인의 힘이 여전히 절대적이고 권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국내에서 65세 미만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이윤경의 연구(2007)에서도 도시지역 거주자일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미지가 노인에게 투영됨으로써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촌지역 거주자에 비해 본인의 노화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노인들은 은퇴 이후 마땅히 할 일을 찾기가 어려운 반면(권중돈·조주연, 2002; 이가옥·이지영, 2005)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1차 산업인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노인이 경제활동이외에도 지역주민과의 일상적이며 비공식적 형태의 상호부조에 참여함으로써 노인이 할 일이 있는 경우가 보편적이다(윤순덕·한경혜,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촌지역 거주자에 비해 본인의 노화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할 것이고, 거주지역별로 본인의 노화에 대한 종단적 변화가 다를 것으로 가정한다.

⑤ 교육수준

일반적으로 여러 경험적 연구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화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한다(권중돈·손의성, 2010; 홍현방, 2009; Jang et al., 2004; Macia et al., 2009). 모로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들이 교육수준이 낮고 지식이 쓸모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Macia et al., 2009). 따라서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젊은 세대와의 교육수준 격차가 적게 나기 때문에 본인의 노화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사회적 역할

①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본 연구는 사회역할이론에 기반하여 사회적 역할이 있는 경우에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사회역할이론에 의하면 어떤 사회집단에 대한 태도는 그 사회집단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Kite et al., 2005). 이 이론에 의하면 젊은 연령층이 노년층에 대해 갖는 태도는 노년층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층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만, 노인층은 대부분 은퇴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층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활동적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며,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노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본인을 활동적, 생산적으로 인식하게 되므로(권중돈·손의성, 2010),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는 중노년층이 본인의 노화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② 손자녀양육

중노년층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노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손자녀양육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양육을 통해 개인은 조부모역할을 새롭게 획득하게 되고 이러한 역할획득은 본인의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조부모 역할은 긍정적, 생산적인 이미지와 연결되기 때문에(Hummert, Garstka, Shaner, and Strahm, 1994) 손자녀양육을 하는 중노년층은 조부모 역할을 생산적,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본인의 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

지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손자녀양육과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통제변수: 경제 및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일관된 경향으로 나타났듯이 경제 및 건강상태가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먼저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수록 노화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 연령차별로 인한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지영(2008)에 의하면 자아상이 부정적인 노인의 특징은 경제상태가 하층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양적 연구 결과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수록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홍현방, 2009; Levy et al., 2002; Jang et al., 2004; Kleinspehn-Ammerlahn et al., 2008).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신체적, 인지적 측면의 노화를 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Jang et al., 2004; Kleinspehn-Ammerlahn et al., 2008; Macia et al., 2009).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의 『고령화와 한국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2003년(시점 1), 2005년(시점 2), 2007년도(시점 3)의 3개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서울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인 춘천지역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상 중노년층을 확률표집한 종단자료로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이다. 1차년도인 2003년 자료는 서울시와 도농복합지역인 춘천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성인 2,529명을 대상으로 건강 및 의료, 심리, 사회복지 및 사회생활의 5개 영역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와 춘천시 구별 조사구의 층화표집, 선정된 조사구에 포함된 동별 통에 대한 집락표집, 선정된 통별 45세 이상 인구의 계통표집을 통해 선정되었다. 자료수집은 전문조사요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점 2의 자료는 시점 1에 조사된 2,529명 중 1,805명(보유율 71.3%)에 대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시점 3의 자료는 시점 1에 조사된 2,529명 중 1,218명(보유율 48.2%)에게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화에 대한 주관적인 상태를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 1에 조사된 응답자 2,529명 중 본인이 응답한 2,460명(N=2,460)을 선정한 후, 이들의 시점 1, 시점 2, 시점 3의 자료를 개인별로 병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Lawton(1975)의 PGCMS의 하위척도인 노인이 지각한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이다.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통해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Levy et al., 2002; Jang et al., 2004; Kleinspehn-Ammerlahn et al., 2008; Macia et al., 2009). 이 척도는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는 5개 문항에 대해 각각 5점 척도(전혀 아니다는 1점을, 매우 그렇다는 5점을)로 측정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5개 문항은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ang and Bollen, 1983; Liang and Bollen, 1985; Liang, Lawrence, and Bollen, 1986; McCulloch, 1991).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진술의 응답은 역순위로 바뀌어서 5개 문항의 응답을 합산한 후(범위: 5-25)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산 점수에서 5점을 빼서 산출하였다(이론적 범위: 0-20). 이 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를 세 시점에 걸쳐 조사하였기 때문에 측정 동일성을 종단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세 시점에 모두 응답한 자만을 선택하여(n=1,154) Vandenberg and Lance(2000)와 Brown(2006)에서 제안한 방식대로 검증해 본 결과(〈표 1〉 참조), 척도의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측정 및 절편 동일성, 측정·척도 및 요인분산 동일성은 본 자료에 의해 지지된 것으로 나타나 세 시점 비교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보면 이 척도는 성, 연령별로 요인구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iang and Bollen, 1985; Liang et al., 1986).

〈표 1〉 노화에 대한 태도의 측정의 종단적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자유도	TLI	CFI	RMSEA
모형 1: 형태동일성 (configural invariance)	278.489	74	.941	.964	.049
모형 2: 측정동일성 (metric invariance)	282.231	82	.948	.964	.046
모형 3: 측정 및 절편동일성 (scalar invariance)	323.978	90	.945	.958	.047
모형 4: 측정·척도 및 요인분산 동일성 (strict factorial invariance)	330.384	92	.945	.958	.047

3)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거주지역, 그리고 교육수학기간, 사회적 역할인 경제활동, 사회활동, 그리고 손자녀양육, 통제변수인 주관적 경제상태 및 주관적 건강 상태로 시점 1 자료의 변수로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은 0, 남성은 1로 부호화였는데, 전체 표본 중 여성이 62.1%, 남성이 37.9%로 나타나 여성이 많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시점 1에서 계산한 만나이로 연속변수로 측정되었다. 평균연령은 67.53세(표준편차 9.38세)이고, 연령집단별로는 45-64세는 28.5%, 65-74세는 49.5%, 75세 이상은 22.0%로 나타나 고연령 노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상태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1(유배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무배우)로 부호화하였으며, 무배우자(42.2%)에 비해 유배우자(57.8%)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거주지역은 도시지역은 0으로, 농촌지역은 1로 부호화하였으며 도시지역 거주자(59.7%)가 농촌지역 거주자(40.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교육수학기간은 연속변수인데, 평균 수학기간이 5.68년(표준편차 4.94년)으로 낮게 나타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평균(표준편차)	백분율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여성		62.1%
남성		37.9%
연령(시점 1의 만나이)	67.53세(9.38세)	
연령집단		
중년기(45-64세)		28.5%
전기노인(65-74세)		49.5%
후기노인(75세 이상)		22.0%
결혼상태		
무배우		42.2%
유배우		57.8%
거주지역		
도시		59.7%
농촌		40.3%
교육수학기간	5.68년(4.94년)	
사회적 역할		
경제활동		
비참여		65.3%
참여		34.7%
사회활동의 수	1.21개(.93개)	
손자녀양육		
양육하지 않음		57.3%
양육함		42.7%
통제변수		
주관적 경제상태	2.20(.92)	
주관적 건강상태	3.36(1.08)	

경제활동 참여는 현재 유급이나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는 1로, 그 이외에는 0으로 부호하였으며, 1/3을 조금 넘는 비율(34.7%)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은 종교모임, 동창회, 자원봉사, 노인정, 이익단체, 여가단체의 총 6개 단체에 대한 참여 여부를 물은 후, 참여하는 단체활동의 수를 합산한 값을 통해 측정하였다.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의 수의 평균은 1.21개(표준편차 .93개)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손자녀 양육은 손자녀를 6개월 이상 양육한 경험이 있으면 1로, 그 이외에는 0으로 부호하였으며, 중노년층의 42.7%가 손자녀를 6개월 이상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주관적 경제 상태는 매우 어렵다는 1로, 매우 여유있다는 5로 측정한 서열변수이며, 평균은 2.20(표준편차 .9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제상태를 어렵게 평가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는 1로,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는 5로 측정한 서열변수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은 3.36(표준편차 1.0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4) 통계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중단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 분석을 수행하였다(Singer and Willett, 2003). 잠재성장모형은 개인내(within-subject) 모형과 개인간(between-subject) 모형으로 구성되는데, 개인내 모형을 설정한 후에 변화에서의 개인차를 알아보는 개인간 모형을 추정한다. 먼저 개인내 모형 설정을 위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무변화모형(no growth model)을 설정하여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을 추정한다. 다음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한 선형변화모형(linear growth model)을 설정하여 척도의 초기값의 평균 및 분산, 기울기의 평균 및 분산, 그리고 초기값과 기울기의 공분산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 시간은 시점 1을 0, 시점 2를 1, 시점 3을 2로 코딩한 값으로 기울기는 2년에 걸친 선형적 변화를 의미한다.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통해서 선형변화모형이 무변화모형에 비해 더 나은 모델인지를 평가한다. 모형의 적합도 비교에는 χ^2 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χ^2 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식이 표본크기에 민감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적합도 지수(TLI >.90; CFI >.90; RMSEA <.08)도 함께 고려한다(Vandenberg and Lance, 2000).

개인내 모형이 확정되면 변화에서의 개인간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고 개인간 차이를 설명하는 개인간 모형을 검증해 본다. 개인내 모형을 무변화모형으로 채택하면 초기값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고, 독립변수가 초기값의 개인간 차이를 설명해 주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반면 개인내 모형으로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면 초기값과 기울기의 분산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본 후, 독립변수가 초기값과 기울기의 개인간 차이를 설명해 주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개인간 모형에서는 독립변수가 서열 또는 연속변수인 경우, 전체표본의 평균(grand mean)으로 중심화(centering)

한 값을 분석에 투입하여 초기값의 절편값에 대한 해석을 용이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잠재성장모형에서 독립변수는 시점 1의 자료로 측정된 것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변수(예: 경제활동)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는 살펴볼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독립변수가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할 수 있다. 개인간 모형에서도 χ^2 , TLI, CFI, RMSEA 지수를 모두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통계프로그램인 AMOS 19.0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시점 2와 시점 3의 면접탈락자와 독립변수의 결측값이 존재하기 때문에²⁾ 가용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으로 추정하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식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종속변수인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3>과 같다.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 변수는 시점 1, 시점 2, 시점 3의 평균이 각각 7.41, 7.70, 7.41로 나타나 변수의 이론적 중앙값인 10점(최소값: 0, 최대값: 20)에 미달해 전반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Cronbach's α 값이 .77-.78로 세 시점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 변수는 세 시점의 왜도값(skewness)과 첨도값(kurtosis)에서 알 수 있듯이 정규분포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 변수는 시점 2에서는 시점 1에 비해 평균값이 높고 시점 3에서는 다시 시점 1의 수준과 동일해져서, 세 시점의 평균값만 보고서는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 변수가 증가(감소) 추세를 보이는지, 아니면 변화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에서 시점별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추정하는 잠재성장모형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을 통해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종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왜도	첨도
시점 1	7.41	4.16	.78	.42	-.26
시점 2	7.70	4.29	.77	.33	-.57
시점 3	7.41	4.41	.78	.41	-.26

2) 본 자료의 결측값이 있는 변수는 교육 수학기간, 경제활동상태, 손자녀양육, 주관적 경제상태인데, 각 변수의 결측값 비율은 모두 1%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2)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문제 1에 답하기 위해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으로 분석해 보았다(<표 4> 참조). 먼저 무변화 모형의 결과를 보면, 초기값은 7.428, 초기값의 분산은 10.438로 추정되며 이 두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해 개인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 중 $\chi^2(6)$ 는 43.3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해 모형이 원자료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χ^2 검증이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적합도 지수는 TLI .974, CFI .974, RMSEA .050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 전체표본의 무변화모형 및 선형변화모형 결과

	모형 1 무변화모형		모형 2 선형변화모형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고정효과(fixed effects)				
초기값(intercept)	7.428	***	7.502	***
기울기(slope)			-.110	*
분산(variance components)				
초기값의 분산	10.438	***	10.330	***
기울기의 분산			.363	+
초기값과 기울기의 공분산			.044	.870
모델 적합도				
$\chi^2(df)$	43.334(6)***		31.376(3)***	
$\Delta\chi^2(df)$	n. a.		11.958(3)*	
TLI	.974		.960	
CFI	.974		.980	
RMSEA	.050		.062	

주 : *** p<0.001, ** p<0.01, * p<0.05, + p<0.1 (FIML 추정)

다음으로 선형변화모형을 수행한 결과, 초기값은 7.502, 기울기는 -.110로 추정되었으며 이 두 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가진 것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예상한 대로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년마다 .110점씩 낮아짐). 그러나 기울기의 절대적인 값이 워낙 작아서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부정적인 변화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값의 분산은 10.330이고 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해 초기값은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기울기의 분산은 .363로 추정되어 통계적 유의성에 근접하고 있다 (p=.091). Singer and Willett(2003)에 의하면 기울기의 분산값에 대한 통계검증은 표본크기와 개인별 시점의 차이 불균형(imbalance) 등에 기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통계검증에 의해 유의성이 .05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가설을 기각하기에는 조심스럽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로 시점의 표본크기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시점 1의 표본크기는 2,460명; 시점 2의 표본크기는 1,763명; 시점 3의

표본크기는 1,251명) 유의성 수준이 .05보다 크지만 가설을 기각하지 않기로 하고 기울기의 분산값이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초기값과 기울기의 공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울기는 초기값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 지수 중 $\chi^2(3)$ 는 31.3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χ^2 차이 검증 결과 $\chi^2(3)$ 는 11.9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선형변화모형이 무변화모형에 비해 더 나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선형변화모형의 χ^2 를 제외한 세 개 적합도 지수 역시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본 연구의 관찰기간인 2003년-2007년동안 초기값 평균이 7.502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다시 말해 연령의 증가로)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3)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문제 2에 답하기 위해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선형변화모형의 기울기의 분산값이 통계적인 유의성에 접근하였지만 이는 자료의 불균형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개인마다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5>와 같이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초기값과 기울기의 개인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를 투입해 보았다. 모형 1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만 투입하였으며, 모형 2에는 모형 1에 투입된 변수에 사회적 역할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모형 3에는 모형 2에 통제변수인 주관적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표 5>의 모형 1에서 보는 것처럼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초기값은 연령집단, 결혼상태, 거주지역, 교육수학기간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고연령일수록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고연령집단일수록 스스로 노인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본인의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Levy(2003)의 설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영미(2005)의 연구와 일치하게 유배우자가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예상과 달리 도시지역 거주자가 농촌지역 거주자보다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학기간은 예상한 대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본인의 노화에 대한 초기값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기울기는 거주지역, 교육수학기간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성별, 연령, 결혼상태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기울기의 회귀계수가 .281의 양(+)의 값으로, 농촌지역 거주자와 도시지역 거주자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초기값 차이는 [그림 1]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고 있고 평균으로 회귀하는 듯한 추세를 보인다. 교육수학기간의 기울기에 대한 회귀계수는 .266의 양의 값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초기값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확대됨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³⁾. 연령, 결혼상태가 기울기

3) [그림 2]는 <표 5>의 모형 1의 회귀계수값을 이용하여 그린 것이다. 초줄은 실제로 전체표본의 교육

와 연관이 없음은 연령별, 결혼상태에 따른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초기값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유지됨을 의미한다. 모형 1의 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민감한 χ^2 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TLI .965, CFI .991, RMSEA .040).

다음으로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사회적 역할인 경제활동, 사회활동, 손자녀양육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초기값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모형 1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분석에 투입된 사회적 역할의 세 변수 모두 노화에 대한 태도의 초기값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사회활동의 수가 많을수록, 손자녀를 양육할수록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기울기에 대해서 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거주지역과 교육수학기간은 모형 1과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수학기간의 회귀계수값은 모형 1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266에서 .039). 또한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값의 기울기는 경제활동, 사회활동, 손자녀양육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세 변수에 따른 초기값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 2의 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민감한 χ^2 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TLI .965, CFI .994, RMSEA .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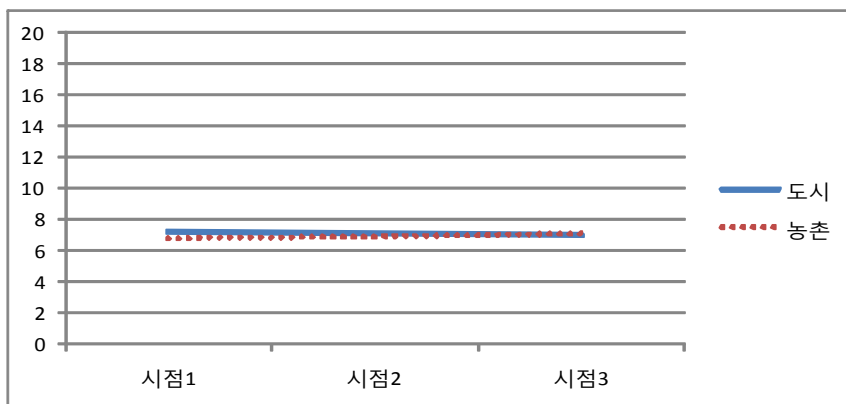
<표 5> 노화에 대한 태도의 종단적 변화와 연관된 요인에 대한 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고정효과(fixed effects)						
초기값(initial status)						
절편	7.253	***	7.040	***	7.428	***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여성=0, 남성=1)	-.136	.470	-.251	.189	-.252	.138
연령(중심화한 값)	-.098	***	-.093	***	-.083	***
결혼상태(무배우=0, 유배우=1)	.849	***	.777	***	.344	*
거주지역(도시=0, 농촌=1)	-.460	**	-.705	**	-.466	**
교육수학기간(중심화한 값)	.195	***	.172	***	.058	***
사회적 역할						
경제활동(비참여=0, 참여=1)			.574	**	.167	.305
사회활동의 수(중심화한 값)			.591	***	.248	***
손자녀양육(비양육=0, 양육=1)			.461	**	.098	.481
통제변수: 경제 및 건강						
주관적 경제상태(중심화한 값)					1.385	***
주관적 건강상태(중심화한 값)					-1.181	***
기울기(slope)						
절편	-.132	.152	-.120	.261	-.176	.105

수학기간 평균인 5.676년으로 엄격하게 말해서 초졸에 미달하지만 편의상 초졸로 명명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여성=0, 남성=1)	-0.135	.298	-0.107	.421	-0.138	.304
연령(중심화한 값)	.008	.181	.005	.4482	.005	.452
결혼상태(무배우=0, 유배우=1)	-0.078	.542	-0.069	.593	.008	.951
거주지역(도시=0, 농촌=1)	.281	*	.296	*	.281	*
교육수학기간(중심화한 값)	.266	*	.039	**	.054	***
사회적 역할						
경제활동(비참여=0, 참여=1)			-0.150	.236	-0.104	.416
사회활동의 수(중심화한 값)			-0.007	.902	.046	.436
손자녀양육(비양육=0, 양육=1)			.009	.934	.053	.630
통계변수: 경제 및 건강						
주관적 경제상태(중심화한 값)					-0.244	***
주관적 건강상태(중심화한 값)					.111	*
모델 적합도						
χ^2 (df)	45.003(9)	***	46.701(12)	***	63.014(14)	***
TLI	.965		.965		.954	
CFI	.991		.994		.993	
RMSEA	.040		.034		.038	

주 : *** p<0.001, ** p<0.01, * p<0.05, + p<0.1 (FIML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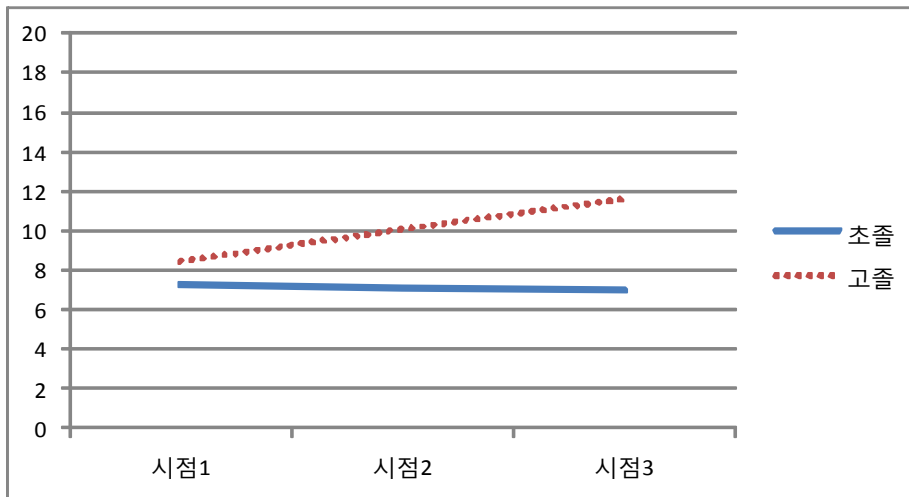


주: 다른 독립변수는 명목변수=0, 연속변수=평균으로 가정함.

[그림 1] 도시와 농촌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종단적 변화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 투입된 변수에 주관적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보았다. 그 결과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초기값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 결혼상태, 거주지역, 교육수학기간과 여전히 통계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으나, 사회적 역할의 세 변수 중 오직 사회활동의 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 3에서 새로 투입된 변수들은 예상한 대로 주관적으로 경제

적인 여유가 있다고 인지할수록,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평가할수록 본인의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다른 독립변수는 명목변수=0, 연속변수=평균으로 가정함.

[그림 2] 초졸과 고졸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종단적 변화

또한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기울기는 모형 1, 모형 2와 동일하게 거주지역, 교육수학기간이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새롭게 추가된 주관적 경제상태와 주관적 경제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상태의 기울기에 대한 회귀계수는 음(-.244)의 값을 가져, 시간이 지날수록 시점 1에서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은 사람은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보다 빠른 속도로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상태가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초기값,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면, 시점 1에서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초기값이 긍정적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부정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주관적 경제상태가 나쁜 사람은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초기값이 처음부터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든 바닥효과(floor effect)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의 기울기에 대한 회귀계수는 양(.111)의 값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초기값의 격차가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기울기가 거의 유사해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모형 3의 적합도 지수도는 표본 크기에 민감한 χ^2 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TLI .954, CFI .993, RMSEA .038).

5. 논의 및 결론

1) 이론적 논의

본 연구에서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관한 종단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고령화와 한국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3개년도 자료(2003, 2005, 2007년)를 잠재성장모델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에 답하기 위해서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를 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중노년층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Kleinspehn-Ammerlahn et al., 2008). 관찰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변화의 폭은 비록 크지 않았지만,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연령효과가 있음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들에 따라 신체적 노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고,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노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인정, 본인의 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Levy, 2003).

또한 연구문제 2에 답하기 위해 노화에 대한 태도의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 연령, 결혼상태, 거주지역,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성별 차이의 경우 Jang et al.(2004)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는 통계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외 Kleinspehn-Ammerlahn et al.(2008)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차이가 종단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본 연구와 국외 연구와의 차이는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고연령일수록 본인의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연령차이가 앞서 살펴본 연령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보다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본인의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연령차이는 코호트효과와 혼재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패널자료의 집적 및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결혼상태의 경우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본인의 노화에 대해서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정서적, 도구적 지지가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정영미, 2005). 다만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한 Jang et al.(2004)의 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은 표본의 지리적 특성 차이, 표집방법(확률표집 대 비확률표집)의 차이 등으로 생각된다.

거주지역의 경우, 예상과 달리 농촌지역 거주자가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본인의 노화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는 초기값에서도 큰 차이가 아니며(비

록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만), [그림 1]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상태와 건강상태 등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농촌지역 거주자의 본인의 노화에 대한 상대적인 부정적인 인식은 이들이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즉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농어업은 신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신체적 노화로 인한 어려움으로 본인의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최성재, 2009). 따라서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 중노년층이 본인의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초기값이 높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가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교육수준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다른 세대와의 교육격차를 느끼게 되어 본인의 노화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Macia et al., 2009).

본 연구 결과, 사회적 역할 중 오직 사회활동만이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연관되고 경제활동 및 손자녀양육은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모형 2에서 보듯이 주관적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를 통제하기 이전에는 사회적 역할의 세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모형 3에서 주관적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를 통제한 이후에는 오직 사회활동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자료의 시점 1자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⁴⁾, 주관적인 경제상태와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중노년층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손자녀 양육은 주관적인 건강상태와는 연관되지 않고 손자녀양육에 참여한 중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중노년층에 비해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경제 상태 및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좋아져서 본인의 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된 것이지, 경제활동 참여 그 자체가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역으로 주관적인 경제상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한 중노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주관적인 경제상태와 건강상태를 통제한 이후에는 경제활동 참여가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손자녀 양육은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양호한 중노년층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혹은 손자녀 양육으로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이로 인해 주관적인 경제상태를 양호하게 인식해서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활동은 주관적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를 통제한 이후에도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활동을 통해 본인을 활동적, 생산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본인의 노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역할과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일천하기 때문에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과 달리 손자녀 양육은 현재 손자녀 양육 여부를 질문한 것이

4) 추가적으로 시점 1의 자료를 가지고 경제활동유무, 손자녀양육의 2개 변수에 대해 각각 주관적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가 다른지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아니라 과거 경험을 질문하였기 때문에 손자녀 양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었다.

통제변수로 포함된 주관적 경제상태 및 주관적 건강상태는 두 변수 모두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의 초기값과 기울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여유가 없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

본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노인여가정책 등 다방면의 정책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열악한 주관적 경제상태가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기초노령연금액 인상과 같은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보장정책이 사후적인 치료보다는 예방 및 재활, 생애주기를 통한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노인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본인의 노화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노년층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인여가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에서는 다양한 여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중노년층들이 본인의 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여가프로그램을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의 분포가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에 보다 많은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예: 대학의 평생교육원)의 이용료를 저소득층에 한해 할인해 주는 방안 등을 통해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중노년층이 본인의 노화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객관적인 경제적 상황 및 건강상태의 열악함으로 인해 중노년층에게 교육, 홍보를 통해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중노년층 스스로 연령차별적인, 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내면화시키지 않고 본인의 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며, 더 나아가 이들을 연령차별적인 제도와 문화를 해소시키기 위한 주체로 조직화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 홍보는 중노년층 중 본인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강한 집단(고연령, 무배우, 농촌지역 거주자, 저학력, 경제 및 건강상태가 열악한 집단)에 보다 집중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수준에 따른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했을 때, 저학력 중노년층이 평생(노인)교육을 통해 본인의 노화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등에서는 무학노인을 대상으로 한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글반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노인 뿐만 아니라 중년층까지 포함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인 변화를 통해 연령과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사회적 역할과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증진시켰다. 또한 방법론적으로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대한 측정의 종단적 동일성에 대해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측값이 있는 경우 가용한 모든 자료를 활용한 FIML 추정에 의한 잠재성장모델로 분석한 점이 강점이라 하겠다. 다만 관찰기간이 4년으로 단기적인 변화만 살펴볼 수 있었으며, 서울과 춘천 지역 중노년층을 확률표집하였으나 두 개 지역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일반화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전국의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수집하여 본 연구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는 중년층과 노년층이 다르게 인식할 수 있으나, 1개 논문에서 이에 대해서 검토하기에는 지면의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6. 『노인에 대한 사회차별 실태조사: 개인적 및 제도적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 권중돈·손의성. 2010. “노인의 자기인식과 차별경험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49: 81-106.
- 김옥. 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3(2): 21-35.
- 김윤정·강인·이창식. 2004. “청년 중년 노년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2004. 동아 출판사. 2006. 『동아 새국어사전』.
- 배문조. 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1107-1122.
- 윤성혜. 1990. “청년, 중년, 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순덕·한경혜. 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4(2): 57-78.
- 이가옥·이지영. 2005. “남성 연소노인의 은퇴 후 적응과정과 노년기 전망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1): 93-120.
- 이금룡. 2004.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를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안모색”. 『노인복지연구』. 26: 143-164.
- 이윤경. 2007. “비노인층이 갖는 노인 이미지 연구”. 『한국인구학』. 30(2): 1-22.
- 이선자. 1989. “각 연령군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노년학』. 9: 79-91.
- 이지영. 2008. “노인차별에 대한 노인들의 의미화 방식에 관한 연구: 노인의 자아정체성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영미. 2005.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의 기분상태, 일상생활활동 및 노화에 대한 태도”. 『성인간호학

- 회지』. 17(4): 656-667.
- 최성재. 2009. "수도권 지역 중년기 이후 세대의 노후생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 29(1): 329-352.
-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 115-127.
- 홍현방. 2009.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이미지 탐색연구". 『노인복지연구』. 44: 327-344.
- Boduroughlu, A., Carolyn Yoon., Ting Lou, and Denise Park. 2006. "Age-Related Stereotypes: A Comparison of American and Chinese cultures." *Gerontology* 52: 324-333.
- Brown, T. A. 200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New York: Guilford press.
- Cook, F. L., and Suzanne R. Kunkel. 2006. "Age Stereotype." pp. 43-44, in *The Encyclopedia of Aging*, edited by Richard Schulz, Linda S. Noekler, Kenneth Rockwood, and Richard L. Sprott.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Hummert, M. L., Teri A. Garstka, Jaye L. Shaner, and Sharon Strahm. 1994. "Stereotypes of the Elderly Held by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49B(5): P240-P249.
- Jang, Y., Leonard W. Poon, Soo-Young Kim, and Bok-Ki Shin. 2004. "Self-Perception of Aging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in Korea." *Journal of Aging Studies* 18: 485-496.
- Kite, M. E., Gary D. Stockdale, Bernard E. Whitley, and Blair T. Johnson. 2005. "Attitudes toward Younger and Older Adults: An Update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41-266.
- Kleinspehn-Ammerlahn, A., Dana Kotter-Grühn, and Jacqui Smith. 2008. "Self-Perceptions of Aging: Do Subjective Age and Satisfaction with Aging Change during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63B(6): P377-P385.
- Lawton, M. P. 1975.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A Revision." *Journal of Gerontology* 30: 85-89.
- Levy, B. R. 1999. "The Inner Self of the Japanese Elderly: A Defense against Stereotypes of Ag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8: 131-144.
- Levy, B. R. 2003. "Mind Matters: Cognitive and Physical Effects of Aging Self-Stereotype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8B(4): P203-P211.
- Levy, B. R., Martin D. Slade, Suzanne R. Kunkel, and Stanislav V. Kasl. 2002. "Longevity Increased by Positive Self-Perceptions of Aging." *Journal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2): 261-270.
- Liang, J., and Kenneth A. Bollen. 1983. "The Structure of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A Reinterpretation." *Journal of Gerontology* 38(2):181-189.
- Liang, J., and Kenneth A. Bollen. 1985. "Gender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Journal of Gerontology* 40: 468-477.
- Liang, J., Renee H. Lawrence, and Kenneth A. Bollen. 1986. "Age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Journal of Psychology and Aging* 1(1): 27-33.
- Macia, E., Abdelziz Lahman, Abdelatif Baali, Gilles Boëtsch, and Nicole Chapuis-Lucciani. 2009. "Perception of Age Stereotypes and Self-Perception of Aging: A Comparison of French and Moroccan Populations." *Journal of Cross Cultural Gerontology* 24: 391-410.

- McCulloch, B. J. 1991.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Journal of Gerontology* 46(5): P251-P258.
- Mroczek, D. K., and Avron Spiro III. 2005. "Change in Life Satisfaction during Adulthood: Findings from the Veterans Affairs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89-202.
- Singer, J. D. and John B. Willett. 2003. *Applied Longitudinal Data Analy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Vandenberg, R. J., and Charles E. Lance. 2000.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Measurement Invariance Literature: Suggestions,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1): 4-70.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Own Aging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Panel Analysis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Lee, Mi-Jin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changes of self-perceptions of own aging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ing with the three waves of the "Aging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Korea", which sampled adults aged over 45 living in Seoul and Chuncheon. The dependent variable is attitudes toward own aging, the sub-scale of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developed by Lawton (1975).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search participants' attitudes of their own aging deteriorated over time. In addition, the lower initial statu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ttitudes of their own aging was associated with being older, being non-married, living in rural areas, attaining the lower level of education, having the fewer social activities, reporting the worse subjective economic status, and reporting the worse subjective health status. The slope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ttitudes of their own aging differed by the residence areas, educational attainments, subjective economic statu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In particular, the difference of the initial status by educational attainments grew over time.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are discussed for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to improve attitudes toward their own aging.

Keywords: Attitudes toward agi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latent growth modeling

[논문 접수일 : 11. 09. 17, 심사일 : 11. 09. 29, 게재 확정일 : 11. 12. 26]